



## 미 증시, FOMC 경계감에도 임금 인플레이 하락 등으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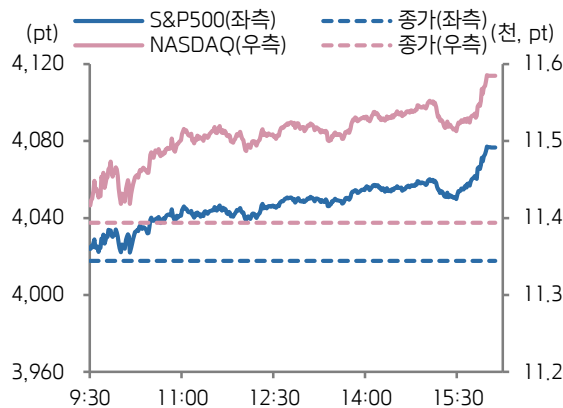
31 일(화) 미국 증시는 FOMC 경계심리 점증에도 GM(+8.4%), 엑손모빌(+2.2%) 등 개별기업 실적 호조, 고용비용지수 둔화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09%, S&P500 +1.46%, 나스닥 +1.67%)

IMF 는 1 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전세계 성장률을 10 월 2.7%에서 2.9%로 상향 조정. 탄력적인 미국 지출과 중국 재개방 수요가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미국은 기존 1.0%에서 1.4%, 유로존 0.5%에서 0.7%, 중국은 4.4%에서 5.2%로 상향조정된 반면 한국은 2.0%에서 1.7%로 하향조정됨.

미국 노동부가 집계하는 고용 비용 지수(ECI)는 4 분기에 QOQ 1.0%(예상 1.1%, 3 분기 1.2%)기록하며 3 분기보다 둔화했다고 발표. 미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임금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미국 1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지수는 107.1(예상 109, 전월 109)로 예상치 소폭 하회. 현재경기에 대한 평가지수가 전월 147.4 → 150.9로 개선되었으나 향후 6 개월간 경기에 대한평가지수가 83.4 → 77.8로 하락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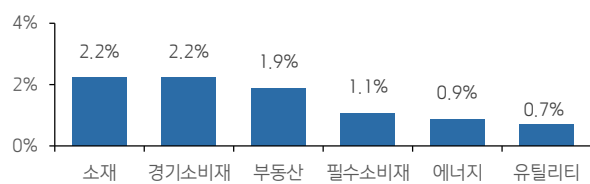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재(+2.2%), 경기소비재(+2.2%), 부동산(+1.9%)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유틸리티(+0.7%), 에너지(+0.9%), 필수소비재(+1.1%)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GM(8.4%) 은 4 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연간 가이드스 하향 조정폭을 시장 예상보다 적게 제시한 영향으로 급등, 경기소비재 섹터의 강세를 주도. 엑손모빌(2.16%)은 매출은 부진했으나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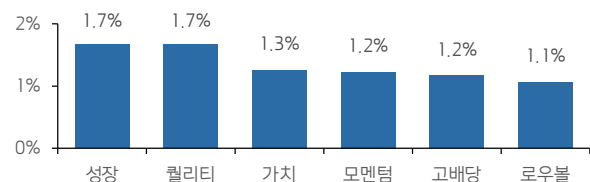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25.08	-1.04%	USD/KRW	1,232.10	+0.38%
코스피 200	317.26	-1.68%	달러 지수	102.09	-0.18%
코스닥	740.49	+0.25%	EUR/USD	1.09	+0.1%
코스닥 150	1,021.60	+0.14%	USD/CNH	6.76	-0.02%
S&P500	4,076.60	+1.46%	USD/JPY	130.10	-0.22%
NASDAQ	11,584.55	+1.67%	채권시장		
다우	34,086.04	+1.09%	국고채 3년	3.315	+5bp
VIX	19.40	-2.71%	국고채 10년	3.280	+4.5bp
러셀 2000	1,931.95	+2.45%	미국 국채 2년	4.203	-3.1bp
필라. 반도체	2,921.92	+1.93%	미국 국채 10년	3.507	-3bp
다우 운송	14,648.34	+3.47%	미국 국채 30년	3.632	-2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63.45	+0.12%	WTI	79.06	+1.49%
MSCI 전세계 지수	643.95	-0.92%	브렌트유	84.49	-0.48%
MSCI DM 지수	2,759.32	-0.95%	금	1943.7	+0.23%
MSCI EM 지수	1,044.00	-0.68%	은	23.82	+0.37%
MSCI 한국 ETF	63.47	-0.78%	구리	422.25	+0.4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8%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2.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FOMC 경계심리의 장중 유입세 심화 가능성 2. SK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등 주요기업들 실적 발표 3. 1월 한국의 수출 실적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인상 상반기 중단 & 하반기 인하에 대한 전망을 정당화 시켜줄 단서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배경도 4분기 고용비용 하락(1.0%QoQ, 3분기 1.3%)이 연준과 관련한 호재성 재료로 작용한 데서 기인.

그간 연준에서는 “임금 상승-물가 상승”간의 악순환 지속을 경계하는 입장이었지만, 12월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4분기 고용 비용이 둔화했다는 점은 악순환 고리가 차단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 31일 IMF에서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2022년 3분기에 피크아웃 했다고 진단한 점도 이를 강화 시켜준 것으로 보임.

물론 IMF가 중국 리오프닝 및 예상보다 견조한 선진국 소비와 투자 등으로 '23년 미국(1.0%→1.4%), 중국(4.4%→5.2%) 등 전세계(2.7%→2.9%) 성장률을 상향조정 했다는 점은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함.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경기 침체를 상정하면서 긴축 중단에 베풀고 있던 와중에, 예상보다 경기가 견조하다면 연준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예상 타임라인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결국 1월 한달 동안 시장은 경기, 연준, 인플레이션 등 주요 매크로 변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에 힘입어 새해랠리를 누려왔으며, 이는 충분히 반길만한 입장인 것은 사실. 이제부터는 입수되는 데이터들과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기대감들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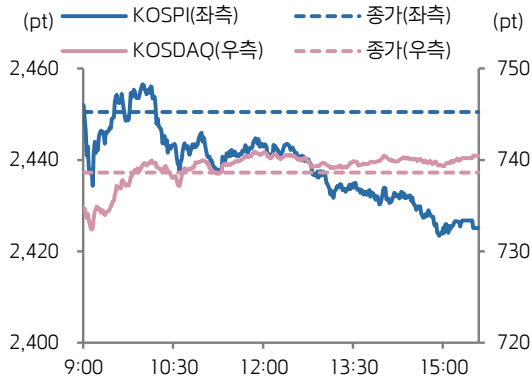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2월 한정 첫번째 관문은 FOMC가 될 것. 시장에서는 지금 25bp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연준이 완화된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1월 이후 급격한 증시 반등 요인이 본인들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었고 증시 등 자산가격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이를 감안 시 2월 FOMC는 매파적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후 시장과 연준간의 괴리가 축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경계심리 속 삼성전자의 CAPEX 축소 부인 소식 등이 반도체 및 대형주를 중심으로한 외국인 매도세를 유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3%).

금일에는 이번주 이후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주가 되돌림 현상이 출현 하겠으나, FOMC 경계심리 속 SK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등 개별 실적 이슈를 소화해가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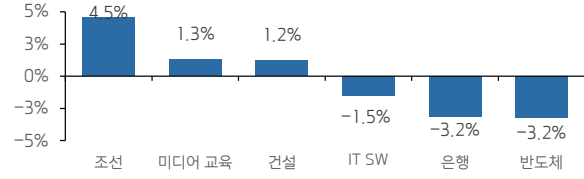
장전 발표 예정인 1월 수출 실적도 개별 업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 1월 수출 컨센서스는 -11.3%(YoY)로 전월(-9.6%)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 다만 지난달 수출 실적 발표 때와 유사하게, 전반적인 수출은 부진하더라도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업종들의 수출 실적에 따라 관련 종목군들간 주가 탄력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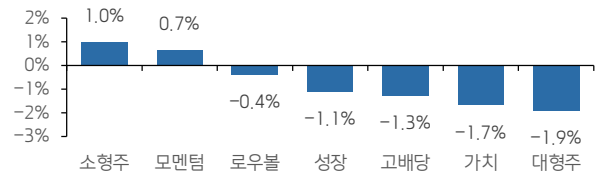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관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